

# 공감적 소통을 위한 발표의 수사적 전략\*

장소진\*\*

|| 차례 ||

- I. 서론
- II. 탈중심화와 배려의 자세, 연대와 존중의 에토스
- III. 친사회적 소통, 구체성과 현장성의 로고스
- IV. 자발적 공유, 감정 이입과 공명의 파토스
- V. 결론

【           】

본 연구의 목적은 발표에서 공감적 소통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수사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수사학의 세 가지 설득 기술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에 주목하여, 각 기술들이 공감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략들을 모색한다.

에토스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성격, 특별히 청중에게 믿음을 심어줄 인품을 강조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에토스가 청중의 공감적 반응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청중을 연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청중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화자는 탈권위적 자세로, 청중을 배려하는 전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로고스는 논리적 사고에 중점을 두고 말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기술이다. 이때 논리의 기준은 청중의 상식적 수용에 기대는 개연성이다. 따라서 로고스가 청중의 공감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말에 의한 논리적 증명을 청중의 수용이 용이한 구술적 담화 방식에 따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성과 현장성에 주목하는 담화를 통해 친사회적 소통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파토스는 화자가 청중에게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이다. 이때 화자가 청중의 감정을 임의대로 자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파토스를 통해 공감을 강화하는 문제는 화자에 의해 유도되는 청중의 감정이 메시지와 관련되어 유발된, 타당한 감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화자는 청중이 타당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감정을 이입하고 공명하도록 이끄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모색한 이러한 수사적 전략은 다양한 발표 상황에서 기저적인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공감, 수사적 전략, 에토스, 연대와 존중, 로고스, 구체성과 현장성, 파토스, 감정 이입과 공명

## I. 서론

현대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창의성을 구성원의 필수 역량으로 간주하는 사회이다. 그런 속에서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이는 소통이 다양성이나 창의성 등을 생산하고 또한 그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낯섦과 불일치, 부조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지향적 가치는 공감이다. 이는 공감이 사회적 이해의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필수 역량이며 중심적 가치이다.<sup>1)</sup>

대학 교양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사소통 교육은 이상의 맥락을 공유하는 가운데 공감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공감이 발휘하는 작용력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공감의 역량을 확장 내지는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내용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나 의사소통의

1) 장소진, 「발표 수업에서의 공감적 피드백의 의미와 전략」, 『문화와 융합』 제39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pp.370-372, 참조.

현장성 내지는 직접성이 강조되는 말하기·듣기 교육에서는 이 문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쓰고 읽는 문자적 소통은 소통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고착되어 있어 반복적 소통이 보장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말하고 듣는 음성적 소통은 음성이 지나는 청각적 흐름에 의해 일회적으로 그 소통의 여건이 제한되어 있다.<sup>2)</sup> 따라서 말하고 듣는 음성적 소통은 소통의 현장에서 그것의 효율성을 최대화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감이란 소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가중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말하기·듣기의 음성적 소통에서 공감은 필연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의 전형으로 자리하고 있는 발표 수업과 관련하여 발표에서의 공감의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발표는 화자인 발표자가 준비된 메시지를 제한된 시간 안에 청중에게 전하는 말하기로, 공적 말하기의 전형적 방식이다. 이는 발표가 사회적 소통의 전형적 방식임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발표 능력의 향상은 사회적 소통의 원활성을 기하는 현실적 문제에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발표 수업을 통해 제한된 시간 안에 소통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소통의 효율성을 기하는 전략의 문제가 대두된다.<sup>3)</sup> 학생들은 청중이 자신들의 발표 메시지를 수용하도록 청중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에 합당한 소통의

2) 발터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7, pp.136-139.

3) 정순현은 현대 사회의 공적 말하기에서 “능란한 말하기”와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진리 추구의 자세를 경계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한 윤리적 모색의 태도를 지향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보편 타당한 지향점이며, 학생들의 발표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전략의 모색은 “능란한 말하기”의 전략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정순현, 『다윈주의 사회에서 공적 말하기』, 『한국소통학보』 제5호, 한국소통학회, 2006, pp.103-127.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 지점에서 공감의 문제가 부상한다.

발표는 기본적으로 설득을 목표로 삼고 있다.<sup>4)</sup> 화자를 기준으로 볼 때 화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청중에게 알리는 것, 그 자체를 의도하기보다는 청중이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의도한다. 화자는 그것이 정서적이든, 인지적이든, 실천적이든, 그 어느 차원에서이든 청중의 변화를 의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는 분명 설득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발표 상황에서 청중이 화자에 의해 조종되거나 선동되는 피동적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수평적 가치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 관계에서 화자와 청중의 관계는 수평성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발표 상황에서도 예외적이지 않다. 발표에서 발화는 화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그 상황에서도 청자는 화자와 어깨를 겨누며 주체적인 반응자로서 소통의 주도권의 한 축을 점하고 있다. 발표 상황에서 청자의 피드백이 차지하는 무게감은 이를 분명하게 증명한다. 따라서 발표에서 화자가 설득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주체적이며 주도적인 청중의 자발적 동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때문에 청중의 공감은 중요하다.<sup>5)</sup>

그렇다면 발표자는 어떻게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일차적으로 수사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진다. 수사학은 청중을 설득시키기 위한 기술을 논의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설득을 목표로 하는 발

4) 이도영은 발표를 포함한 보다 상위적 차원에서 대중 의사소통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가운데 “대중 의사소통의 본질적 목표는 ‘설득’”이라고 규정한다. 비단 설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 의사소통도 결국은 설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설과 설득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도영, 『대중 의사소통의 특성과 교육 방법』, 『화법연구』 16호, 한국화법학회, 2010, pp.66-74.)

5) 발표 수업에서 청중은 교수자와 동료 청중이라는 이원적 구성으로 의식될 수 있으나, 공감적 소통이 전제하는 수평적 맥락에 따라 교수자가 동료 청중과 동질화되는 것도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표에서 수사학에 대한 고려는 기본적인 필수 사안이다. 그런데 이때의 수사학은 설득에서의 공감의 중요성을 전제한 상황이므로 공감의 수사학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곧 공감의 수사학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보다 제한적으로는 발표에서의 공감의 수사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기술로 에토스와 로고스와 파토스를 제시한다.<sup>6)</sup> 그것들은 각각 의사소통 상황의 핵심 구성 요소인 화자와 메시지와 청중과 연관된 개념들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일환으로서 설득을 기본 목표로 하는 발표에서 이 기술들에 주목하는 것은 유효하다.<sup>7)</sup>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연설은 화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한, 화자 중심적 발화이다. 일례로 그는 화자에게 지혜와 미덕 등을 요구하지만 청중은 평범하거나 우둔한 자로 간주한다.<sup>8)</sup>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설에 대한 그

6) “말로 제시하는 증거(설득의 기술-인용자 주)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것은 말하는 사람의 성격에 달려 있고, 두 번째 것은 청중이 어떤 심적 상태에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세 번째 것은 말이 증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는 말 그 자체에 달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수사학/시학』, 숲, 2018, p.31.)

7)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고대 수사학이라는, 현대 사회와는 시간적 거리를 갖는 학문 체계이지만, 현대 사회의 인식과 가치에 맞닿은 기원적 국면들을 담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특징은 로고스의 정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성적이고 논리적 국면들에 주목하며 합리적 설득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가 지향하는 이와 같은 수사학적 특징은 현대 사회가 여전히 이성적 합리성을 지향하며, 그와 같은 국면에 근거하여 대화적 소통을 지향한다는 사실과 상통함으로써 여전히 그 유효성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수사학의 목표가 설득이라는 사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화자와 청중 간의 대화적 담론을 지향한다는 전제를 담보함으로써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쌍방적 소통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수사적 준거점이 된다. 더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에토스와 파토스가 근거하고 있는 감정의 문제는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공감적 소통의 가치의 기저가 되어 준다.

8)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35, p.127, p.201.

와 같은 이해는 현대의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의 문화와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제시한 설득의 기술들은 현대적인 소통 문화 맥락에 따라 재의미화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공감 개념의 수용 문제와 맞닿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설득의 수단들과 공감의 구성 요소들인 정서적, 인지적, 의사소통적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의 하위적 특성들 간의 연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9)</sup> 따라서 본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설득의 기술들과 공감의 국면들 간의 연계 속에서 발표에서의 공감의 수사적 전략들을 모색해 보고, 실제 수업에서 실현되었던 발표문들을 예시적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발표의 수사적 전략들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시도해 볼 것이다.

## II. 탈중심화와 배려의 자세, 연대와 존중의 에토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에토스는 화자<sup>10)</sup>의 성격, 특히 윤리적, 도덕적 인품을 통해 증거하는 설득 수단이다. 화자가 말을 통해 드러내는 믿음직스러운 성품은 설득의 원인이 되며, 특히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의견이 엇갈릴 때 화자의 성격은 더욱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그러한 점에서 “성격은 말하는 사람이 지닌 가장 효과적인 설득 수단”에 해당된다. 화자가 에토스를 통해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식<sup>11)</sup>과 미덕과 호의의 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화자는 청중에게 바른 의견이나 선의적 가

9) 박성희, 『공감학』, 학지사, 2017, pp.47-67, 참조.

10) 웅변가, 연설가, 변론가 등의 여러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표를 대상으로 하는 본 논문의 성격에 따라 화자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11) 실천적 지혜, 통찰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치를 분별하여 전해야 하고 청중을 향한 긍정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sup>12)</sup> 그런데 이러한 에토스는 화자 스스로가 연설 중의 말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달리 말해 청중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청중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화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청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중과의 공감의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발표 상황에서 화자와 청중의 관계는 비평형적이다. 화자는 적어도 발표 주제에 대해 인지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청중보다 우위적이다. 그것은 발표 상황을 성립시키는 전제 조건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화자에게 상식과 미덕의 자질을 요구한 것도 그러한 국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식이 부족해 그릇된 의견을 지니거나, 바른 의견을 지니지만 사악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적인 상황을 들어, 그에 대한 대비적인 차원에서 화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상식과 미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화자는 발표 상황에서 그러한 발표의 발생적 조건, 혹은 화자가 지녀야 할 상식과 미덕의 자질 조건을 승화적 차원에서 뛰어넘어야 한다. 발표의 발생적 우위성, 상식과 미덕으로 인한 청중에 대한 화자의 위계적 우위성을 뛰어넘어, 역으로 청중과 대등한 수평화의 평형성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또 하나의 자질인 호의의 문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의는 대가를 바라거나 도움 주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 받는 자를 위해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13)</sup> 이는 화자와 청중의 관계에서 그 중심이 청중을 향해야 하며, 나아가 화자가 청

12)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p.31-32, p.127.

13) 위의 책, p.157.

중의 필요와 요구를 의식해야 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화자가 발표 상황이 전제하는 화자 중심 상황에서 탈피하여, 탈중심화를 이루고 청중지향적인 배려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이는 발표 상황에서 화자가 청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청중에게 공감하는, 타자지향적인 배려의 자세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는, 공감이 두 당사 간의 연합이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함께 있는 존재의 양식이기도 하다<sup>15)</sup>는 공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중과 연대를 이루며 청중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분명 청중은 설득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화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교육적 대상이 아니며, 스스로의 자족적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에 기반하여 발표 상황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인지적 상황의 비평형성을 감정적 공감을 통해 평형화시키는 각도에서 에토스를 구현함으로써 설득의 정도를 깊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예시들을 통해 연대와 존중의 에토스와 관련된 수사적 전략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sup>16)</sup>

가) 최근에 연예인들이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악성댓글에 강경대응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악플러들을 어떠한 죄로 처벌할 수 있고, 또 이를 위해 피해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4) 박성희, 앞의 책, pp.51-52.

15) 위의 책, p.31.

16)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문들은 필자가 지난 수년 간 담당해 온 발표 수업에서 제출된 발표문들에서 발췌한 자료들이다. 강조나 기호 부여는 논의의 필요에 따른 필자의 작업이다.



나) 메모리얼 다이아몬드를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장례문화인 메모리얼 다이아몬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화자의 에토스가 화자에 대한 기존의 선입관에서 생겨서는 안 되고, 오직 연설 상의 말을 통해서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의 메시지가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그것에 관여한다. 그러나 그 전달 과정에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의 무게를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메시지를 담아내는 언어적 표현에서부터 수사적 전략이 작동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화자의 에토스 형성에서 말을 강조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이 같은 관점에서 위 두 인용문을 살펴보면 언표적 측면에서 좀 더 청중에 대한 배려 혹은 연대나 존중을 명시화하는 수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의 경우 화자는 그 어디에서도 청중과 공감적 소통을 나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의 모든 표현들이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어 일방향적인 전달의 의도만이 강하게 드러난다. “알려드리고자” 하는 의도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화자가 청중에게 “알려” 주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악성댓글 게시자를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한 메시지를 준비한 계기가 연예인들이 악성댓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임에 주목하면, 청중을 배제한 일방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발표에서 청중은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어느 지점에 자신의 자리를 잡아야 할지 혼돈스럽다. 이 발표가 진행된 실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중은 연예인도 아니고, 악성댓글

17)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p.31-32.

게시자로 혹은 악성댓글 피해자로 간주될 만한 집단도 아니다. 그렇다면 청중은 이 발표에 왜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 결국 화자가 마련한 발표에는 청중에 대한 배려의 자리가 없는 것이다. 화자에게는 청중과 함께 발표를 의미화 시켜 갈 연대 의식도 없고, 그런 만큼 화자로서의 청중에 대한 존중도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의 발표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메시지가 청중의 깊은 공감 속에서 소통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에 의한, 언표적 차원에서의 배려의 에토스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공감적 설득을 위한 수사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나)의 경우를 보면, 가)에 비해 언표적 차원에서 청중을 의식하는 정도가 보다 강화되어 있다. 첫 문장에서 청중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음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청중을 의식하는 소통의 자세가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단절로 치달아 버리는 한계를 드러낸다. 인용문 상의 강조 부분에서 확인되듯이 화자는 청중의 무지를 언표화한다. 그리고 청중의 무지를 전제로 화자 본인이 인지적인 차원의 우위에서 청중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 주겠다는, 존중보다는 권위의 에토스를 드러낸다. 물론 청중에게 전달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청중의 이해와 수용을, 공감을 높일 수 있는 각도에서 접근되었느냐 하는, 수사적 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나) 인용은 좀 더 청중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언표적 수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죽음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따라서 장례 문화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영역임을 전제하는 가운데 청중의 자발적인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다음의 예문들에서는 에토스와 관련하여 좀 더 긍정적인 국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다) 도전하는 발표자 ○○○입니다. 저는 ‘20대, 일어서는 법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한번쯤은 넘어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종종 넘어지고는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넘어지는 중일 수도,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 합니다.

라) <나는 사랑을 응원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될 ○○○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 제목을 어디선가 들어봤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저 제목은 밴드 혁오의 <tom boy>라는 노래가사의 한 문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는 내용과 딱 맞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연 무슨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될지 같이 함께 알아가 봅시다.**

우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랑과 청춘’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불타는 거) 그쵸. 보통 열정적인, 젊은, 불타는 그런 느낌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 ‘불타는 청춘’이 아닌 바로 ‘불에 타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청춘’ 혹은 **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쩌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의 두 예문들은 앞의 예문들과 달리 청중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청중을 존중하며 청중과 연대하고자 하는 에토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러분”이라는 청중을 향한 호명, “우리”로 드러나는 화자와 청중의 동일 범주화, 청중을 향한 질문 제시 등은 그 단적인 근거들이 된다. 그렇다고 이 근거들만이 연대와 존중의 에토스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에토스는 그 근거들과 더불어 여타의 부분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형성되는 전체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다)의 경우 “여러분”에서 “누구나”로 그리고 다시 “우리는”으로 이어지는 메시지의 흐름은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범주 안으로 청중을 끌어들이므로써 어느덧 화자의 관심이 청중의 관심이 되도록, 즉 화자와 청중 간에 관심이 공유 되도록 이끌고 있다. 그것은 분명 화자와 청중 간의 평형성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화자가 청중을 향해 연대와 존중의 에토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적 흐름 속에서 청중의 공감은 필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의 경우는 청중과의 직접적 소통의 의지가 대화의 방식을 통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화자가 자신의 메시지 전개 과정에 청중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메시지의 전개가 청중과의 동행의 흐름을 타면서 진행되고 있음이 쉽게 확인된다. 이는 분명 화자가 청중에게 보내는 신뢰와 우호의 신호이며, 이 신호는 화자가 청중을 향해 지니는 연대와 존중의 에토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와 라)에서 드러나는, 연대와 존중의 에토스를 전제한 화자와 청중 간의 동일 범주화 내지는 동행의 수사적 전략은 화자를 향한 청중의 공감의 정도를 깊게 할 것이다.<sup>18)</sup>

### Ⅲ. 친사회적 소통, 구체성과 현장성의 로고스

발표에서 화자 중심의 에토스에서 탈피하여 청중을 연대와 존중의 대상

18) 위 인용문들을 두고도 몇 가지 보완 작업을 덧붙여 볼 수 있다. 이 작업은 굳이 에토스 개념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업 역시 공감의 정도를 깊이 하는 데 기여할, 또 다른 차원의 수사적 작업이므로 제시해 본다. 다)의 경우 마지막 문장의 “한 소녀” 앞에 ‘다시 일어서는’이라는 어구를 보완해 주는 것이 좋다. 다)의 화자가 청중에게 들려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넘어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대응이므로 ‘넘어지는’에 대응하는 맥락을 명시화하는 연표 제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용문 처음에 제시되고 있는 제목을 참조할 만하다. 라)의 경우도 이탤릭체의 ‘하지만’을 ‘그런데’로 보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껏 유지해온 청중과의 동행의 흐름을 ‘하지만’을 통해 역전시키기 보다는 ‘그런데’를 통해 전환시켜 그 단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으로 받아들이며 발표의 성공 여부를, 혹은 설득이라는 목표의 실현 여부를 청중의 공감에 기대는 것은 그 자체로 청중의 수준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제 청중은 일방적 계몽의 대상이 아니며 화자의 메시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도 아니다. 청중은 그 자체로 충분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다. 청중의 지적 역량 역시 비전문적 단계라고 일갈할 수만은 없다. 민주적 가치의 일상화, 교육의 보편화, 정보 매체의 다양화 등의 현실은 화자와 청중의 수준 자체를 평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는 청중의 눈높이에 근거한 청중의 지적 욕구를 따라주어야 한다. 청중의 공감은 감정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에토스나 파토스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로고스에서조차 청중의 공감 여부는 작용한다. 공감에서 인지적 요소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sup>19)</sup> 감정이 이성의 국면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논의는 참조 사항이 될 것이다.<sup>20)</sup> 따라서 화자는 청중이 지니고 있는 지적인,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역량에 따른 공감도 의식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의 로고스는 “말이 증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로 해석된다.<sup>21)</sup> 이를 발표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로고스는 발표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거를 들어 논증을 펼치라는, 그리하여 청중을 이성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설득하라고 요구하는 수사적 기술이다. 그는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학도 “논거를 대는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거들의 설득력의 준거를 개연성에 둔다. 개연성은 그럴듯함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나 통상

19) 박성희, 앞의 책, pp.48-52, 참조.

20) 소병일, 「이성과 감정의 이원론을 넘어」, 『감정의 인식론적 고찰』, 한국학술정보, 2014, pp.111-138, 참조.

21)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31.

적인 것, 그리하여 대다수 사람들에 의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처럼 설득력의 준거를 개연성에 두는 것은 로고스가 기준점을 청중에게 두고 있음을, 즉 청중이 동의할 수 있느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2)</sup> 이는 곧 연설에서 청중의 무게감을 의식한 것으로, 공감의 관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청중의 무게감에 대한 인식은 청중의 공감의 중요도를 시사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증 방법의 하나로, 더 적은 전제들로 진행되는 생략삼단논법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전제 중 어떤 것이 잘 알려져 있다면 듣는 사람이 스스로 덧붙일 수 있으니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sup>23)</sup>다고 한 대목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역시 청중의 능동성을 강조한 것으로,<sup>24)</sup> 청중의 무게감과 그에서 시사되는 청중의 공감의 중요도를 드러내는 또 다른 국면이다.<sup>25)</sup> 결국 로고스 역시 언어적 표현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중 간의 소통적 관계 속에서, 나아가 청중의 수용과 공감 속에서 설득력을 강화해 가는 것임이 드러난다. 이는 로고스 역시 공감을 향한 소통적 관계성의 영역이기도 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로고스의 논증 과정에서 공감의 친사회적 요소에 주목하며 공감을 높이기 위한 언어적

22) 그리하여 로고스 상에서의 논증은 상식추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박삼열, 『토론과 수사적 설득』, 『철학탐구』 37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5, p.252.) 박성창은 이 개연성의 문제를 화자와 청중 간의 사전 합의의 문제로 해석하기도 한다.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5, p.55.)

23)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35.

24) 박성창은 생략삼단논법이 수사적 기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생략삼단 논법이 청중에게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게 함으로써 논증의 구성 과정 속에서 완전한 것을 이루어내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함으로써 청중의 설득이라는 원래 목표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다. (박성창, 앞의 책, pp.64-65.)

25) 이는 연설을 화자 중심에서 이해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해석일 수 있으나 상대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표현과 전달의 문제를 의식해 볼 필요가 있다. 친사회적 소통의 관계성을 의식하는 로고스 형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친사회적 소통이 실현될 발표 방식 상의 특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발표는 음성 언어를 기본 매체로 하는 구술적 소통이다. 따라서 그것은 구술적 소통 방식의 특성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구술적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그것의 기본 매체인 소리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소리는 “사라지려고 할 때만 존재한다.”<sup>26)</sup> 정지되지 못한 채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소리의 특성인 것이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기억의 문제를 부상시켰다. 하여 구술적 소통에서 기억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는 발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자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청중은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기억은 필수 요건이 된다.<sup>27)</sup>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기억의 뭉은 차치하고자라도 청자의 이해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나아가 청중의 공감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중의 기억의 문제를 의식해야 한다. 더욱이 논리적이어야 하는, 그리하여 사변적일 가능성이 커짐으로 인해 이해의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로고스 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의식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의 용이성을 위해 주목해 볼 특징으로 구체성과 현장성을 들 수 있다. 구체성과 현장성은 기억의 출발선이 되는 인식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형적인 길이다. 사실 인간의 인식은 감각에서 시작되는 것이고,<sup>28)</sup> 이 감각은 구체적인 물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구체성과 현장성을 넘어서는 인식의 길을 찾기란 쉽지 않다. 결국 찰나적인 순간을 통해 의미를 전하는 소리 언어는 기억의 용이

26) 월터 옹, 앞의 책, p.117.

27) 고전 수사학이 논거발견, 논거배열, 표현, 기억, 연기로 구성되었음도 참조할 만하다.

28) 소병일, 앞의 논문, p.122.

성을 위해, 기억의 출발선인 인식이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 감각 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감각이 작용하는 현실의 구체성과 상황의 현상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29)</sup>

마) 그렇다면 이런 의견 차이(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입장-인용자 주)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① 첫 번째는 난민수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② 난민 수용 기준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최대한 범죄가능성을 낮추고 IS테러집단의 출입을 막는 것입니다. ③ 이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을 막고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난민만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 남북 간의 전쟁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략)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전 세계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역설적인 무엇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살 행위일 것입니다. 핵무기를 발사하면, 그 피해가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발생할 것입니다. 핵무기 발사로 인한 환경 오염은 북한의 생활 환경이나 산업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고, 나아가 국가 체제 자체가 비상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 발사로 인한 대기와 해양오염은 한반도 본토를 넘어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을 멈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가, 나머지 전 세계를 등지고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위 두 인용문은 단적으로 논증의 구체성에서 차이가 난다. 마)의 경우 논증이 지극히 압축적인데 반해 바)의 경우는 논증이 매우 상세하게 전개되

29) 이때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월터 옹이 제시한 구술 문화의 사고와 표현의 특징이다. 그는 구술 문화의 사고와 표현의 특징을 첨가적, 집합적, 다변적, 전통적, 생활세계 밀착, 논쟁적, 참여적, 항상성, 상황 의존적 등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월터 옹, 앞의 책, pp.61-96.



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에서 전제들의 생략을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청중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할 기회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청중들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적인 범주 안에서의 문제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압축적인 논증이 전개되고 있는 마)의 경우는 개연성에 근거한 생략을 넘어선 논리적 비약을 드러낸다. ① 문장에서 ② 문장으로의 흐름은 생략의 범주로 수용 가능하다. “난민수용기준을 엄격하게”하는 것과 “범죄가능성을 낮추고 IS테러집단의 출입을 막는 것”의 관련성은 “엄격하게” 한다는 것의 내용을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가운데 연결지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② 문장 내용에서 ③ 문장의 내용으로의 흐름은 생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가기 어렵다. ② 문장 내용의 결과가 ③ 문장 내용으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가능성 집단이나 테러집단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난민들”과 등가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가능성 집단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난민”과 배척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② 문장과 ③ 문장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논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럴듯함에 근거한 청중의 공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의 경우는 역으로 상황스럽고 다변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구술적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함과 다변성이, 지나친 압축적 전달의 경우보다 청중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 화자의 주장을 보다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게, 그리하여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윌터 옴은 “말은 목소리로서 발하는 본래의 환경에서는 생생한 인간 생활이 영유되는 현재의 일부분”이며, “이야기되는 말들은 언제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의 조절을 받”고, 그리하여 “입으로 하는 말은 결코 단순히 말의 컨텍스트 속에 고립되어 나오지 않”음을 이야기한다.<sup>30)</sup> 구술적 발화가 발

화의 현재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구술적 상황에서 실현되는 발표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 저는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고민 없이 “나의 꿈은 무엇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꿈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왜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꿈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남들과 비교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의 꿈이 작다고 느껴지고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꿈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 결과 꿈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 고정관념,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먼저 재미로 간단한 테스트를 두 가지 할 건데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손톱을 봐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손톱을 볼 때 손바닥을 펴서 보면 여성적이고 이렇게 오므려서 보면 남성적이라고 합니다.

하나 또 해볼까요? 여러분 손에 성냥이 있다고 상상하고 성냥을 꺼보세요. 어떻게 끄셨나요? 성냥을 호~불어서 끄면 여성적, 흔들어서 끄면 남성적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공감이 되시나요? 과연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이 나누어져 있는 걸까요?

위 두 인용문은 언뜻 보면 두 화자 모두 발표 현장을 의식하고 현장의 상황을 이용하여 청중과의 직접적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0) 윌터 옹, 앞의 책, p.163.

이는 사)의 경우는 청중을 향해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에서, 아)의 경우는 청중에게 구체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런데 이 인용문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발표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의식해보면, 발표 현장을 활용하는 정도에서 두 인용문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사)의 경우 묻고 답하는 패턴으로 메시지가 짜여 있는데, 이 패턴 자체로는 화자와 청중 간의 대화적 구성이지만, 실제적 측면에서 그것은 화자의 일방적 발화이다. 청중을 향한 질문은 청중의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에 이어 제시되고 있는, 화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일 뿐이다. 인용문에서 강조된 발화들은 그 단적인 증거들이다. 결국 사)에서의 질문들은 추론을 형성해 가기 위한 논리적 매개일 뿐으로, 질문에서 답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에 청중의 답이 수용될 여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이는 윌터 옹의 견해에 따르면 컨텍스트로부터의 분리이고, 실제적인 현장성의 배제이다. 그리하여 사)의 로고스는 청중을 향해 질문을 던져 놓고 청중의 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리하여 오히려 청중의 배제를 강화시키는 역설을 낳고 있다. 이는 청중의 공감의 정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아)의 경우는 화자가 청중을 발표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끌어들이며 청중을 자신의 메시지에 타당성을 부여해 줄 예증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청중 자체가 예증이 되는 로고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의 현장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화자와 청중 간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공감의 도를 높이는 중요한 로고스 상의 전략이 될 수 있다.<sup>31)</sup>

---

31) 아)에 대한 보완 작업 하나를 시도해 본다면, 첫 문장을 인용문의 마지막에 배치하여 예증을 활용한 귀납의 구성으로 짜 보는 것도 청중의 공감의 자발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 될 것이다.

#### IV. 자발적 공유, 감정 이입과 공명의 파토스

수사학이 목표로 하는 설득에서 그 판단의 몫은 청중에게 놓여 있다. 청중은 설득에서 최종 지점인 것이다. 앞서 논의한 에토스나 로고스도 모두 그러한 청중을 향한, 그러한 청중에게 작용하기 위한 전략들이다. 그러나 에토스나 로고스가 화자나 메시지의 문제를 내세움으로써 청중을 향해 우회적으로 다가간 간접적인 접근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또 하나의 수사적 기술인 파토스는 그대로 청중을 향하는 직접적인 전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파토스를 “청중이 어떤 심적 상태에 있게” 하는 설득 수단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심적 상태”라는 표현이다. 파토스는 곧 청중의 마음, 즉 감정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하여 파토스는 화자가 청중으로 하여금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처럼 청중의 감정 상태를 설득 기술의 일환으로 주목한 것은 감정 상태에 따라 청중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32)</sup> 즉 청중의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이 판단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작용력까지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화자가 연설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청중의 감정만을 자극하는 당시의 수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연설의 메시지와 상관되는 감정 자극을 지원한다.<sup>33)</sup> 이를 위해 그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심적 상태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는 이유 등이 연설의 내용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힘을 강조한다.<sup>34)</sup>

이러한 맥락은 발표 상황에서 화자가 청중에게서 공감의 파토스를 이끌

32)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32, pp.126-127, 참조.

33)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연구』, 서광사, 2015, pp.301-330, 참조.

34)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p.127-128.

어내고자 할 때의 기본적인 방향을 시사한다. 가장 우선적인 시사점은 감정이 이끌려지는 상황의 합리성 내지는 타당성에 대한 요구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청중의 감정에 대한 화자의 의도적 악용에 대한 경계이다. 로고스를 통해 말에 의한, 메시지 자체에 의한 논리성을 강조했던 것에서 시사되듯이 말 혹은 메시지 안에서의 합리성 내지는 타당성의 자족적이고 충족적인 전개는 파토스에 의한 설득에서도 여전히 지향점인 것이다. 왜 공감해야 하는지가 발표의 메시지 안에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느껴져야 한다. 감정 안에 이미 인식적 국면이 내재되어 있으며<sup>35)</sup>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에 주목한 이유가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사실 등은 파토스에 의한 설득에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언급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들의 실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감정의 세 국면, 즉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심적 상태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는 이유를 충족시키는 문제와 맞물린다.

공감은 “관찰자와 피관찰자 간의 연합,” 다시 말해 화자와 청중 간의 연합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둘의 일체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둘 간의 분리의식이 분명할수록 더 수준 높은 공감이 가능하다. 분리의식 자체가 공감이라는 감정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기도 한 까닭이다. 발표는 화자와 청중 간의 명백한 분리 속에서 진행되는 소통이다. 그 분리 속에서 화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청중의 ‘함께’라는 공유의 마음을 얻을 때, 그것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공유의 마음을 얻을 때 발표는 설득이라는 목표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게 된다. 화자는 청중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정을 얻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파토스 차원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35) 소병일, 앞의 논문, pp.126-131, 참조.

사실 공감은 인지적, 심리적, 도덕적, 나아가 의사소통적 국면까지 다양한 국면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공감은 그러한 여러 국면들의 여정을 거쳐 듣는 이의 공유의 마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표의 화자는 에토스의 덕을, 로고스의 논리를, 파토스의 정감을 총동원하는 것인데, 특히나 파토스 차원에서 공감은 진행적인 과정에서 상대를 향한 감정 이입의 여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그 감정 이입에 공명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sup>36)</sup> 파토스 차원의 공감은 곧 감정 이입과 공명의 여정인 것이다.

자) 저는 어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시를 할 때나 과제하느라 지칠 때 그 음악이나 영상들을 보면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습시다. (중략)

어떤 아이돌 그룹의 팬이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시다. 외모, 노래, 연기 등등 모두 입덕 계기가 다 다를 텐데요. 아이돌 그룹이 결성될 때 이미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의 취향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중략) 회사 측에서도 다른 매력을 지닌 멤버들을 영입하여 팬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추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음악성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인데요, 예로 빅뱅의 경우는 미국 빌보드 차트의 K-POP부분에서가 아니라 디지털곡 부분에서 1, 2위를 할 정도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한류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팬덤문화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략)

여기까지 팬덤문화를 소개했는데요, 여유를 가지고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차)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쌍방향적인 관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 사랑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른 한쪽은 그 사랑이 고맙지만, 한쪽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36) 박성희, 앞의 책, pp.22-33, 참조.

바로 팬과 스타의 관계입니다. (중략)

**‘닿을 수 없는 허상’이라고 결론지어 버리는 사람들에게 저는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타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들. 그들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닌, 그저 사랑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랑도 있다고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하게 가지는 욕망을 접어 둔 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위의 두 인용문을 파토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청중을 감정의 이입의 상태로 끌어들이어 공명에 이르게 하는 국면들을 찾기가 어렵다. 우선 자)를 처음과 마지막 문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측면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첫 문장에서 화자는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자신이 그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이점을 피력하고 있다. 충분히 가능한,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견해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마지막 문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청중도 아이돌의 팬이 되어 보라는, 화자의 권유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중이 곧 화자는 아닌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리적 거리를 메워줄,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낼, 설득을 위한 수사적 전략이 개입될 필요가 있다. 자) 인용문의 외형적인 형식 상, 강조되고 있는 두 문장 사이의 내용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에서 두 문장 사이의 내용들은 그러한 괴리적 거리를 메우기에 역부족이다. 위 인용문의 메시지가 지니는 제재 상의 특징이나 마지막 문장에서 화자가 권유하는 내용을 보면 여타의 설득 전략보다도 파토스 차원의 전략이 유효할 가능성이 큰데 비해, 정작 화자가 제시하고 있는 두 문장 사이의 내용들은 그러한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들은 청중이 감정을 이입하고 공명하기에는 너무 객관적이고 지시적인 정보들이다. 때문에 청중은 제시된 내용들을 매개로 파토스적 공감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결국 청중은 화자의

마지막 권유에 공명하기, 공감하기 어렵다. 차)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설득의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차)의 경우는 또 다른 각도에서 화자와 청중 간의 파토스 차원의 공감 형성이 어렵다. 차)는 팬덤 문화를 사랑이라 역설하는 발표이다. 사랑이라는 감성적 주제에 걸맞게 문체 또한 감성적이고 때로는 격정적이다. 그렇다고 메시지를 통해 파토스적 공감이 유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청중을, 스타에 대한 사랑을 “닿을 수 없는 허상이라고 결론지어 버리는 사람들”로 상정한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스타에 대한 팬의 마음은 사랑이라 주장한다. 이는 화자와 청중의 입장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청중의 감정 이입과 공명을 어렵게 한다. 더 나아가 화자는 청중을 향해 자신의 주장을 “이해하고,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린다. 청중의 공감을 원천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 차)의 발표는 이러한 메시지의 흐름으로 인해 화자의 감성적 전언에도 불구하고 청자의 감정 이입이나 공명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된다. 청중의 파토스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이다. 차) 인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메시지와 긴밀하지 못한 감정 자극을 경계했던 것을 환기시킨다.<sup>37)</sup>

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좌절과 실패와 성공에 대한 구체적 서사 제시 -인용자 주) 타고난 연기력과 끼를 가졌음에도 마약에 빠져 재능과 인생을 낭비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과감히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슈퍼 히어로가 된 것입니다.** 전 이 이야기를 알고, 나는 저렇게 망가진 삶속에서 중독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간적인 그의 모습과 실패를 이겨낸 모습에 매력을 느껴 결정적으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

37)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p.24-30, 참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잘못된 무엇에 빠져 어떤 것을 못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우리는 취업 걱정과 성적 등 많은 이유들로 좌절하고 실패하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그 실패와 한계에 빠져 진짜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처럼 한계를 극복하고 끼와 재능을 살려내서 자기 삶의 슈퍼 히어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김태희, 한가인, 전지현, 누구나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배우들이죠. 우리는 (중략) 그들처럼 하루만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연예인 같은 얼굴과 몸매가 되는 것입니다.** (중략)

왜 자존감이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의 역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매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중략) **따라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 많이 들어 보셨죠? ‘풀꽃’이라는 시처럼 **여러분은 비록, 연예인처럼 화려한 장미꽃이 아니라도 충분히 매력을 가진 꽃입니다.** (중략)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두 인용은 공감 파토스의 실재를 살펴볼 여지를 제공해 준다. 카)는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좌절과 실패를 떨치고 배우로 성공한 이야기를 전제로 화자와 청중 모두의, “우리”의 희망을 독려하는 발표이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과 재미를 전하는 속성을 갖는다. 이 발표가 이야기를 논거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파토스적 접근의 길을 연 셈이 된다. 더

옥이 그 이야기가 유명 배우의 실화인데다가,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역전의 구도를 보이면서, 그 감동과 재미의 강도가 강화된다. 청중의 감정 이입과 몰입이 용이한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배우의 서사적 상황에 화자와 청중, 즉 “우리”의 상황을 대비시키며 배우의 성공 신화가 곧 “우리”의 신화가 되기를 염원한다. 이에 대해 청중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논리적 분석 이전에 직관적 공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발표는 청중이 공명으로 답할 여지를 크게 마련하고 있다.

타)는 청중에게 청중의 아름다움을 근거로 자존감을 지니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발표이다. 화자는 청중이 아름다운 근거를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 전하는 의미로 제시한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에 기대어 모든 존재의 귀함을 이야기한다. 청중 또한 시인이 귀히 여긴 모든 존재에 해당하므로, 분명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만한, 충분히 귀한 존재이다. 화자는 청중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처음에 연예인을 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상적 통념을 문제시하고, 그에 반하는 삶의 태도인 자존감의 가치를 논증한다. 청중의 이성적 합리성에 기대어 논증을 펼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증에 문학 작품이 지니는 상징적 함축성이 발하는 여운을 덧댈으로써 청중의 감성을 자극한다. 풀꽃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너도 그렇다,” 청중인 너도 아름답다는 것이다. 풀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기 동일화의 유도, 그것은 분명 청중의 감정 이입을 이끌어내는 파토스적 유인이다. 이에 대해 청중이 공명으로, 공감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크다.

## V. 결론

소통의 의미가 각별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직면한 초고속의 시대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시·공간의 확장 속에서 인간은 관계의 그물망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소통은 인간의 존재성을 실현해 가는 핵심 도구가 된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사회의 여러 하위적 단위에서까지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여 원활한 소통의 방식이 모색되는 가운데, 공감적 소통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의 반영이다. 거기에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공감의 본능을 지닌 존재이며, 오랜 동안 그 공감의 본능에 기대어 공존을 이루어 왔다는 전제가 놓여 있다. 바로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공감을 미래적 방향으로 정립시켜 가는 것이다. 공감적 소통 역시 인간의 미래적 방향이며 미래적 가치의 일환이다.

공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나누는 소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발표이다. 발표는 공적 사회에서 일상화된 소통 양식인 것이다. 따라서 발표 역시 소통의 원활성의 일환으로 공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을 전제로 대학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발표 수업에서 공감의 정도를 깊이 할 수 있는 발표의 수사적 전략을 살펴보았다. 발표 역시 소통의 기본적 체계에 근거하므로 화자와 메시지와 청중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 세 요소의 공감적 역할 강화에 주목하여 공감의 수사적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받쳐주는 기본적 토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제시한 에토스와 로고스와 파토스이다. 이들은 각각 화자와 메시지와 청중에 대응하는 수사적 전략들이다. 이들 전략들은 연설 일반의 관점에서 정립된 개념들로서 공감의 문제를 중심적 전제로 삼은 것은 아니다. 이에 본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에토스와 로

고스와 파토스의 일반적 개념에 기대면서, 그것들이 청중의 공감적 반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았다.<sup>38)</sup>

에토스는 화자의 성격을 의미한다. 특별히 청중에게 믿음을 심어줄 인품이 강조된다. 그리하여 에토스는 화자에게, 청중을 올바른 가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상식과 미덕과 호의를 요구한다. 그런 에토스가 청중의 공감적 반응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청중을 연대적 대상으로 삼고 청중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더해야 한다. 청중은 이제 더 이상 화자가 권위적 자세로 접근할 열위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탈권위적 자세로, 청중을 배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로고스는 메시지 그 자체에 주목한 전략이다. 로고스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강조되고 말에 의한 논리적 증명이 요구된다. 이때 논리의 기준은 타당성, 개연성이다. 이는 청중의 상식의 보편성에 주목한 것이다. 그것은 곧 청중의 상식적 수용 여부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로고스 차원에서 공감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말에 의한 논리적 증명 그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청중과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그것의 담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구술적 소통 방식의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논증은 구술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성과 현장성을 담보한 담화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 친사회적 소통을 지향하는 로고스의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파토스는 화자가 청중에게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감정은 판단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그것은 수사적 전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판단에 변화를 일으키는

38) 본고가 논의한 세 가지 수사적 전략은 개념적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졌으나 그것들이 실현되는 실제적 차원에서는 유기적이고 융합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유기성에 주목한 새로운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감정의 기능은 화자가 임의로 청중의 감정을 자극할 위험에 대한 경계를 요한다. 따라서 화자에 의해 유도되는 청중의 감정은 메시지와의 관련성 속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파토스를 통한 청중의 공감의 깊이 역시 메시지와의 관련성 속에서 유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토스는 청중이 메시지의 타당성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감정을 이입하고 공명을 표할 수 있도록 구사되어야 한다.

사실 공적 현장에서 발표는 구술 발화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시각적 자료의 보조가 필수화된 상황이고, 또 구술 발화에는 비언어적 표현이 동원되기 마련이어서 발표의 소통의 방식은 다원적이다. 그리고 그 모두는 청중과의 소통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화자와 청중의 소통에서 구술 발화가 가지는 기본적인 중심성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가 제시한 수사적 전략은 유의미하다. 물론 앞으로 다원화된 소통의 전략들을 연계적으로 살펴 소통의 깊이를 더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삼열, 『토론과 수사적 설득』, 『철학탐구』 37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5, pp.237-260.
-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5.
- 박성희, 『공감학』, 학지사, 2017.
- 소병일, 『이성과 감정의 이원론을 넘어』, 『감정의 인식론적 고찰』, 한국학술정보, 2014, pp.111-138.
- 이도영, 『대중 의사소통의 특성과 교육 방법』 16호,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2010, pp.63-93.
- 장소진, 『발표 수업에서의 공감적 피드백의 의미와 전략』, 『문화와 융합』 제39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pp.367-392.
- 정순현,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적 말하기』, 『한국소통학보』 제5호, 한국소통학회, 2006, pp.103-127.
-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연구』, 서광사, 2015.
- Aristoteles, 천병희 역, 『수사학/시학』, 숲, 2018.
- Duarte, Nancy, 정순옥 역, 『공감으로 소통하라』, 에이콘출판, 2013.
- Howe, David, 이진경 역, 『이기주의의 배신』, 지식의 숲, 2013.
- Leith, Sam, 정미나 역, 『레토릭』, 청어람미디어, 2015.
- Ong, Walter J.,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7.
- Ueding, Gert, 안미현 역, 『수사학의 재탄생』,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Abstract**

## Rhetorical Strategies of Presentation for Sympathetic Communication

Jang, So-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rhetorical strategy for achieving sympathetic communication in the presentation. To this end, the study focuses on three persuasive techniques in rhetoric presented by Aristotle: Ethos, Logos, and Pathos, and looks for ways in which each technique should be added to increase the depth of sympathy.

Ethos is basically a technique that emphasizes the character of the speaker, especially the character that will instill faith in the audience. In order to deepen the audience's sympathetic response, Ethos must recognize the audience as a regimental partner and respect the audience. The speaker should seek a strategy that considers the audience in a de-authoritative attitude.

Logos is a technique that focuses on logical thinking and logically proves through words. In this case, the standard of logic is the probability that the audience will accept as common sense. Therefore, in order for the logos to deepen the sympathy of the audi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ral discourse, which will enable logical verification by speech but facilitate acceptance by the audience. It is necessary to pursue pro-social communication through a discourse that focuses on concreteness and presentation site.

Pathos is a technique in which the speaker inspires emotions specific to the audience. At this time, one should be beware of the speaker's arbitrary stimulation of the audience's feelings. Therefore, the problem of strengthening sympathy through Pathos is due to the appropriate emotion caused by the message. The speaker should have a strategy to voluntarily induce the audience to bring in and resonate emotions based on their relevance.

It is hypothesized that the rhetorical strategies that the research has sought will serve as fundamental strategies in various presentation situations.

Key Word : sympathy, rhetorical strategy, ethos, regiment and respect, logos,  
concreteness and presentation site, pathos, empathy and resonance

장소진

소속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전자우편 : ways@dongduk.ac.kr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